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희망

(에스겔 12:1~28)

21.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2.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23.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24.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25.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희망>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희망'
오늘 말씀은 약속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거래처와의 사이에서 성사된 계약과 부부간의 약속에 대해 비교해봅니다. 거래처와 계약이 합당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간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아도 한 명이 참는 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미 고인이 되신 저희 아버지께서 어머니에게 매년 하셨던 약속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고등학교 선생님을 은퇴하시고 달력을 제작하는 사업을 하셨습니다. 이 달력은 1년 단위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달력을 제작할 때쯤이면 "올해는 꼭 대박을 치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달력 사업을 20년 넘게 하시는 동안 단 한 번도 약속을 지키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아버지를 소송을 거시거나 이혼을 요구하신 적도 없습니다. 약속의 내용과 약속을 한 당사자가 내 마음에서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거래처 사람과 아내에게 "연말까지 5,000만원을 주겠다."라는 동일한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거래처 사람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바로 소송을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5,000만원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저울로 무게를 달아보면 돈은 100kg이고 사람은 1kg인 상태입니

다. 반면에 아내는 약속이 깨졌지만 책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내의 마음속에서 돈은 1kg이고 남편은 100kg이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아쉬움으로 인해 타박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때뿐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 적용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선민을 부르셔서 이런 저런 것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선민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과 뜻이 있음도 알려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선민은 약속의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래처와의 약속과 부부간의 약속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선민들은 마치 거래처를 대하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의 무게는 1kg이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내용을 100kg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내 미래에 대해서 은혜로운 계획을 말씀하실 때에 조심해야만 합니다. 조심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약속을 지키실지 신용도에 대해 의심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서는 5~6년 뒤에 일어나게 될 예루살렘의 멸망과 시드기야 왕의 비참한 최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멸망에 관한 예언을 미래나 희망에 대해 연결시키십니다.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 정도 문제를 당했는데도 선민들이 하나님께 보여야 마땅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선민들이 이렇게 마땅한 반응을 보일 수 없게 된 이유는 가나안 땅에 대한 집착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나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가나안 땅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집착의 근원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선민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애착을 보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민들은 땅을 잃고 포로로 잡혀 와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는커녕 가나안 땅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선 말씀들을 통해 살펴본 대로 에스겔은 선지자로 소명을 받으면서 천국과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천국과 하나님을 지금 가져야한다는 것을 선민들에게 깨우쳐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온 선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선민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에 대한 대처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을 조심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일찍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대하는 방법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선민들은 그 교훈을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실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약속의 내용을 마음에 담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하시는 당사자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내용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여러 가지 대상을 균등하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적인 대상이 하나 선택되고 나면 나머지는 먼저 담긴 대상에 종속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약속의 내용이 아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먼저 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민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주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좋아하고 마음에 담으라고 하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붙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시중에 "긍정의 힘"이나 "시크릿" 등과 같은 자기계발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바라봄의 법칙"을 강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속에 그리고 외치고 고백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신앙적으로 볼 때에 아주 선민답지 않은 이방인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들을 약속해 주셨지만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것을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려서 동네에서 축구를 하면 주로 수비수를 했습니다. 한편 저의 둘째 형은 축구를 선수처럼 잘했습니다. 형이 수비를 잘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었는데 공을 빼앗으려 하지 말고 우리 편 골대로 다가오는 사람을 막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공이 아닌 사람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약속과 하나님의 관계와도 닮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성취는 미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공격수가 공을 몰고 골을 향해 오듯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몰고 선민에게로 오실 때에 선민이 해야 할 일은 약속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약속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붙잡지 않아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내 생애의 미래와 계획이 펼쳐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선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몰랐고 또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무시했습니다. 미래에 풍요와 다산을 거머쥐려는 사람이 되지 말고 지금 여기 너희 옆에 계신 하나님을 가지라는 것이 바로 선민들을 향해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 말씀의 요지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정탐할 때에도 열 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들은 이미 철기문화를 소유했고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 살아가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니 자신들은 메뚜기 같이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약속을 바라보았기에 오류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던 거인들조차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선민들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내용에 마음을 두는 이유는 무엇이었을

까요? 인간은 미래를 내다보는 기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희망의 기질입니다. 스스로 미래를 내다보는 기질이 나를 하나님으로 만듭니다. 스스로 미래를 내다보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내용을 끼워 맞춥니다.
미래에 잘 살고 싶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마침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가진 희망의 구체적 내용이 되고 정작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버립니다. 거래처에서 약속을 지키나 안 지키나 감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올려다보는 것 외에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내 미래를 내다보는 것은 내가 아닌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 후에 모든 인간에게 미래를 내다보고자 하는 기질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내 인생의 파괴자는 돈 못 버는 배우자가 아닙니다. 승진 못하는 회사의 환경도 아닙니다. 내 몸에 생겨난 병 때문도 아닙니다. 이제까지 내 인생을 파괴해왔고 앞으로도 파괴해갈 것은 미래를 내다보는 기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내다보기와 선민의 내다보기가 충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때부터 100년이 넘도록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멸망의 예언을 반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선민들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허투로 여겼고 이스라엘 전국이 바벨론에 의해 두 차례나 유린을 당한 후에도 이러한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되는 바벨론의 3차 침입을 5~6년 앞둔 현 시점에서도 예언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긍정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미래가 열리기만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기에 갈등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고 하였습니다.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은 미래를 내다보는 타락한 기질이 발동된 결과입니다. 미래를 알고는 싶지만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으니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과 점술에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예언이란 본래 단순히 미래의 일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과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 거리를 유지하면 결과적으로 망하는 미래가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예언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점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허탄한 묵시이고 아첨하는 복술입니다. 미래에 돈 많이 벌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 뜻대로 되리라고 해주는 것이 아첨하는 복술입니다. 또 모든 성경 말씀을 자기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교인들의 바람에 맞추어서 해석하고 전해주는 것이 허탄한 묵시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기 미래를 내다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악한 죄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셔서 약속의 내용이 드러나더라도 그것은 축구공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막아야 되고 끌어안아야 하는 대상은 축구공인 약속이 아니라 그 약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제가 축구를 할 때에 공을 빼앗으려고 할 때마다 형은 이 소리를 귀가 따갑도록 반복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려는 약속이나 미래를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곁에 계신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모든 이방인들 불신앙인들 악한 자들이 미래를 내다보려하지만 하나님을 붙잡은 자들의 미래는 지금부터 펼쳐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붙잡은 하나님 속에 내 미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미래를 갖고 계시고 약속을 쥐고 계신 하나님을 붙잡았으니 미래 또한 내 발밑에서부터 펼쳐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전개되어 나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갖고 걷는 걸음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미래와 약속은 전개되어 나갈 것입니다. 향해가는 미래가 아니라 시작되는 미래가 되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미래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진 자들은 내 미래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를 바꾸는 법입니다.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희망이지 나의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희망은 지금 올려다보기를 통해 바라보아야만 하는 하나님 자신뿐입니다.

청년들에게는 장년이 미래이고, 장년이신 분들에게는 노후가 미래이고, 노후이신 분들에게는 사후가 미래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미래는 나의 희망이 아닌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청년이 장년이 될 때까지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는지는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청년이 해야 될 일은 나의 장년을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청년의 시절에 갖는 것입니다. 공은 어디로 가든지 사람을 막으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장년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노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없이 내가 노후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나의 희망은 지금 하나님을 갖는 것이고 나의 노후는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내 미래가 하나님의 희망이라는데 인생에 어떤 문제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기 전까지 찾아올 미래에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20~30년 졸고 계셔서 내가 하나님이 모르는 미래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은 존재할 수도 없는 생각입니다. 나의 미래는 항상 하나님의 희망 속에 있습니다. 내 미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희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바라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나의 미래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미래는 나의 희망이 아닌 하나님의 희망인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문에서는 시드기야 왕에 대한 언급이 자주 등장합니다.

2절을 보면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라고 하였고 12절에서도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고 했고 13절에서도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

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보는 것과 관련된 언급이 많습니다.

바벨론의 3차 침공 때에 예루살렘은 18개월 동안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이때에 시드기야 왕은 견디다 못해 무너진 성벽을 넘어 야간도주를 하게 됩니다. 남쪽 아라비아 사막 쪽으로 도주하다 바벨론 병사들에게 붙잡히고 바벨론군의 야전사령부가 있던 립나에서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먼저 시드기야 왕이 바라보는 가운데 두 아들이 살해당합니다. 그걸 보게 한 뒤에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고 놋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본문은 바로 이러한 일이 있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으로 본 것은 두 아들이 죽는 장면이었습니다. 두 아들은 시드기야 왕의 미래이자 시드기야를 이어서 왕이 될 자들이기 때문에 유다 나라의 미래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이들이 바라보던 미래가 잘려져 나감을 뜻합니다. 이처럼 스스로 미래를 바라볼 때에 미래는 잘려져 나갑니다. 또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을 뽑히게 됩니다. 스스로 미래를 희망하던 자의 최후가 바로 이러하리라는 것입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 무섭게 진노하시는 대상이 스스로의 미래를 내다보는 눈입니다.

선민들의 가나안 땅에 대한 집착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눈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내용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습되어 나간 결과로 멸망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충고했어도 선민들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내용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미래를 스스로 바라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라고 한 것처럼 희망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래와 희망을 주실 것이니 스스로 희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희망하고 내다보았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악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상징적으로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의 죽임을 통해서 그 미래가 잘려져 나감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이 이 예언을 할 때에 바벨론에 잡혀온 포로들은 여전히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혈통인 시드기야가 왕위에 있었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건재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이를 통해 미래가 회복되리라는 미신적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에게 에스겔은 바벨론 땅에서라도 위에 계신 하나님을 올려다 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계속해서 미래를 내다보기를 멈추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언을 주신 것입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히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왕국의 미래를 짊어진 두 왕자가 살육 당함을 통해 이들이 바라보던 미래가 끊어지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겨워하시고 무섭게 진노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해왔습니다. 이 땅에서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희망을 가지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했습니다.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올려다보라는 것이지 세상에 대한 꿈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을 한답시고 비전과 꿈을 갖는 것에 거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너무도 악한 일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이상한 짓을 했기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당한 비참함에 비할 수 없는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내가 시드기야 왕보다 더 악하게 꿈을 꾸고 미래를 점쳤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때마다 시드기야 왕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뽑아버리시기를 원하시는 시드기야 왕의 눈이 내게도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 알고 싶어서 예언 기도를 받고 싶고 점치는 집이라도 가고 싶을 때에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십자가를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기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이 뽑힌 시드기야를 생각하면서 미래를 내다보고 싶어 하는 기질이 죽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리까지 내 마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강제로 눈이 뽑혔지만 우리는 십자가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스스로 뽑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럼으로써 주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눈을 새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눈이 곧 나의 눈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시는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미래를 바라보던 눈을 뽑아버리고 주님의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만을 지금 여기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축구경기로 치자면 우리는 수비수입니다. 하나님은 공격수가 되셔서 약속과 미래라는 축구공을 몰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축구공 대신 하나님 자신을 끌어안고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붙잡은 하나님 안에 나의 미래가 있습니다. 이제 나의 미래는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전개되어 나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내다보려 하지만 하나님을 끌어안은 나는 발밑에서 미래가 펼쳐져 나갈 것입니다. 미래는 나의 희망이 아닌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희망하는 나를 오늘도 십자가에서 끈질기게 죽여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오늘도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시드기야가 뽑힌 눈을 스스로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내다보고 미래를 희망함이 끝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눈으로 하나님만을 올려다보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가짐으로써 하나님 속에 있는 미래가 지금부터 내 발밑에서 전개되고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